

전체 주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메시지 3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해 그리스도를 삶

성경: 빌 1:19-21상, 3:3, 8-14, 엡 3:1, 4:1, 11-12, 16, 6:18, 20, 롬 8:2, 29

1.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순수한 산출물이다.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나온 것만이 그분의 반려자이자 배필인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다—창 2:22-23, 엡5:28-30.**
 - A.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머리의 몸도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그 그리스도’, 곧 단체적인 그리스도이다—골 1:18, 고전 12:12, 골 3:10-11.
 - B. 그리스도 이외의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며,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질적인 요소이다. 이 이상은 우리의 타고난 사람에 속한 그 무엇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마비시킨다’—빌 1:19-21상, 3:3, 8-14.

11.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 갇힌 사람’, ‘주님 안에 갇힌 사람’, ‘최사슬에 묶인 대사’로서 우리의 영 안에 갇히는 것이다—엡 3:1, 4:1, 6:20, 고후 5:20, 참조 고후 5:4, 9, 14, 16.**
 - A. 그리스도 안에 갇힐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그분에 대한 계시를 받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새사람을 창조하시는 그리스도, 모든 것들을 한 머리 아래 통일하시는 그리스도, 은사를 만드시고 은사를 주시는 그리스도, 거처를 정하시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차원을 체험한다—엡 3:18, 5:25-27, 2:15-16, 1:20-23, 4:7-8, 11-12, 3:17상.
 - B.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자유가 없고 더 이상 자신의 편리에 따라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의 인도와 지시를 받으며 그것에 따라 어디에 가며 무엇을 할지를 결정한다—겔 1:1-3, 요 7:6, 8.

- III.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를 체험한 결과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실재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를 살도록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해 그리스도를 사는 비결은 생명의 영의 법을 정의하고 묘사하고 설명하고 제시해 주는 로마서 8장에 있다—롬 8:2.**
 - A. 로마서 8장은 ‘생명의 영의 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어떻게 삼일 하나님께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심으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이후에 우리의 영 안에 하나의 법, 곧 우리 안에 있는 자연스럽게 자동적인 원칙과 능력으로 설치되었는지를 묘사해 준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

- 에 있는 가장 위대한 발견, 심지어 가장 위대한 회복 중의 하나이다—롬 8:2-3, 11, 34, 16.
- B. 우리는 설치되신 자동적인 하나님, 곧 삼일 하나님의 ‘전류’이신 내주하시는 그 영의 ‘스위치를 켜므로써’ 설치되고 작용하는 생명의 영의 법에 협력해야 한다. 이 법의 ‘스위치를 켜는 것’은 영을 따라 행함으로써 주님을 계속 접촉하고, 그분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고, 습관처럼 그분과 교통하며, 그분의 주입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다—빌2:13, 엡 6:18.
1. 생명의 영의 법과 우리의 영의 연합인 연합된 영 안에서 행동하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행동하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사는 것이다—롬8:4.
 2.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의 법을 통해 작용하심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의 모든 속 부분 안으로 나누어주시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분배를 받게 된다—히 8:10.
 3.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영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엡 6:18.
 - a. 우리는 “주여, 저를 통해 사소서.”라는 기도를 지속적이며 살아 있는 방식으로 호흡처럼 쉬지 않고 해야 한다—살전 5:17, 엡 6:18, 찬송가 304장.
 - b. 에베소서 6:18의 계시를 따라, 우리는 몸의 생활의 실재를 갖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신체적으로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경계하며 완전히 깨어서 잠자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과 존재를 거슬러 싸워야 한다—엡 5:14, 6:17하-18, 골 4:2.
 - c.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우리의 몸과 정신을 압도하게 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며 깨어 기도해야 하고,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며 방심하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한다—마 26:41, 엡 6:18.
 - d.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 즉 주님을 부르고 그분과 대화함으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를 쉬지 않고 들이마시는 습관을 세움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해 그리스도를 사는 습관을 세워야 한다—애 3:55-56, 시편 102편 제목, 찬송가 201장.
 4. 우리는 그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함으로써, 생명의 영의 법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해 그리스도를 살 수 있다—엡 5:18-20, 골 3:16-17.
 5. 우리는 비어 있고 열린 그릇이 됨으로써, 생명의 영의 법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해 그리스도를 살 수 있다—마 5:3, 눅 1:53, 왕하 4:1-6.
 - a. 바울의 열네 서신은 ‘열린 그릇’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롬 9:21, 23, 고 후 4:7.
 - b. 우리는 주님을 극도로 누리고 사랑함으로 우리 자신을 철저히, 완전히, 절대적으로 주님께 열어야 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몸을 위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고전 1:9, 2:9, 참조 16:22.
- C.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역량인 생명의 영의 법의 작용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살고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한다—겔 36:27, 롬 8:2, 29, 엡 1:22-23, 3:19-21.
- D.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역량인 생명의 영의 법의 작용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조성하여 모든 종류의 기능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게 한다. 그 결과 온 몸이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한다—엡 4:11-12, 16.